

## 강경행위를 이어가는 북한의 노림수와 대응방향

### 홍 우 택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북한은 지난 4월초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한 이후 다양한 행위들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5월 15일에는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포하여 그나마 남아있던 남북 간의 교류통로마저 위협하고 있다. 또한 대남사업의 실세로 불리던 최승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처형되었다는 소문도 있다. 심지어 5월 25일에는 2차 지하핵실험을 하는가 하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렇게 작심을 한 듯이 계속되는 북한의 강경한 행태들은 무엇을 의도하는 노림수일까?

북한이 강경노선을 걷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해석들은 남한 내부 분열용, 미국 및 남한에 대한 협상력 제고, 그리고 북한 내부 단속용등이다. 이러한 해석들 모두 각각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해석을 덧붙이자면, 북한의 최우선 목표와 선호도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노림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여느 독재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김정일을 포함한 북한 지배계층의 최고의 목표는 체제유지일 것이다. 체제유지가 되어야만 그들의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에게 핵무기는 체제유지 혹은 체제수호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종종 그들은 내부 선전매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부재는 자신들의 강한 군대에 의해 억제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핵무기를 보유한 그들의 군대 덕분에 미국이건 남한이건 외부로 부터의 안보위협을 해소할 수 있고, 따라서 체제유지가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과의 핵협상이 많은 난관을 거쳐 왔고, 또 앞으로의 전망 또한 불투명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 남한정부의 햇볕정책 하에서도 꾸준히 핵개발을 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재 계속되는 북한의 긴장조성행위들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북한은 한반도를 포함하여 대외적으로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 및 꼬투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북한은 줄곧 핵문제의 협상대상을 미국으로 고집하여 왔고, 미국으로 부터의 위협을 강조하여 왔지만, 남한은 그들의 위협대상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한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었고 기대했던 바와 다른 미국의 대북정책 모드가 긴장조성을 통해 핵보유 핑계로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여건이 된 것이다.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이유를 체제유지에서 찾는 것은 대부분의 시각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핵을 포기시키는 접근법은 그렇지 않다. 일각에서는 북한체제의 유지를 보장해 주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남한과 미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들의 안보위협 인식을 바꾸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북한과의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여기지만, 그들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미국은 자신들의 존망을 결정짓고도 남는 군사력을 가진 가까워 질 수 없는 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체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하고, 긴장조성을 통해 정당성의 빌미로 삼으려는 것이다.

어쩌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도 받고, 또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핵무기를 빌미로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원조도 계속해서 받는 것을 최선의 선택으로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개혁 개방만이 북한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여길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지배계층은 개방의 위험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점진적으로 북한을 개방시키는 방법으로 지난 정부의 유화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남한 내의 목소리만 들어도 섬뜩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핵을 빌미로 경제적 지원의 혜택은 누리면서, 내부는 강압적인 단속이나 탄압을 통해 체제유지를 하려는 것이 북한의 지배계층이 선택한 방향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미련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한동안 북한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개성공단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왔다. 심지어는 남북경협도 경제논리로 풀어야 하고 또 풀 수 있다고 여기는 시각도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계약 무효선언은 남북 간에는 아직도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의 상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노출되어지는 것은 체제유지에 점진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북한은 계약의 무효도 선언할 수 있고 또 감수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하기가 간단치 않은 것이기 보다는, 북한의 위와 같은 속성 때문에 간단치 않은 것이다. 종종 북한의 행위들을 벼랑끝 전술에 비유하기도 한다. 비유와 함께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협상을 위해 그런 행위를 보이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협상을 원하는 게 맞는다면 누구에게 유리한 협상조건을 내걸지는 분명하다. 북한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벼랑끝 전술을 펼칠지도 모른다. 한 번에 상대가 넘어가지 않으면 더욱 더 그렇다. 지금까지 북한은 그래왔다. 원하는 것을 한 번 얻으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여 왔다. 이제는 그러한 전술이 효용성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효과적인 협상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알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굳이 성난 목소리로 알려줄 필요는 없다. 단지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이번 2차 핵실험도 그들만의 실속 없는 잔치였다는 것만 알리면 된다.

